

전주국제영화제서 ‘K-사운드’ 확산 꾀한다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영특한 대화·케이사운드 라이브러리 홍보부스 운영·효과음원 시네마 공연 등 진행

소리의 고장 전주시가 구축한 한국형 영화 효과 음원이 다가오는 제26회 전주국제영화제에서 국내외 영화인과 관객들을 만나게 된다.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원장 허전, 이하 진흥원)은 오는 30일부터 5월 9일까지 펼쳐지는 ‘제26회 전주국제영화제’ 기간 중 △K-사운드가 사용된 기생충, 오징어게임2 등을 작업한 한국 영화 음향 전문 국내대표 기업인 라이브트(대표 최태영)과 함께하는 ‘영특한 대화(토콘서트)’ △한국형 영화 효과음원 플랫폼 ‘케이사운드 라이브러리’ 홍보 부스 운영 △효과음원 시네마 공연 등 K-사운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K-사운드 행사는 한국형 영화 효과 음원 산업의 이해와 확산을 위해 준비된 것으로, 진흥원은 영화제 조직위와 협력해 준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대중과 소통한다는 구상이다.

첫 번째로 준비한 ‘영특한 대화’는 ‘영화와 함께하는 특별한 대화’의 줄임말로 오는 5월 5일 오전 11시, CGV 전주고사에서 진행된다.

진흥원은 이 자리에서 한국 영화 음향 전문 대표기업인 라이브트의 최태



소리의 고장 전주시가 구축한 한국형 영화 효과 음원이 다가오는 제26회 전주국제영화제에서 국내외 영화인과 관객들을 만나게 된다.

영 대표를 초청해 최근 개봉된 ‘빅키 17(감독 봉준호)’의 음향 마스터 제작 기사 등 영화 음향의 효과적인 구현 방법과 사운드 기술의 최신 동향을 공유할 계획이다.

또 영화 사운드 제작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는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되며, 참여를 원하는 영화인과 관객들은

전주국제영화제 누리집을 통해 누구나 신청 할 수 있다.

진흥원은 이어 이번 영화제에서 오는 5월 1일부터 6일까지 6일간 고사동 영화의 거리 일대에서 한국형 영화 효과음원 플랫폼 케이사운드 라이브러리(이하 케이사운드 라이브러리) 홍보 부스를 운영한다.

지난해 공식 서비스를 시작한 케이사운드 라이브러리는 수입에 의존해 왔던 한국 영화 효과 음원의 국산화를 위해 한국 고유의 소리를 정제·가공해 서비스하는 플랫폼으로, 현재 한국적 전통소리와 자연의 소리 등 총 11개의 카테고리에 약 3만5000여 건의 한국형 효과 음원을 보유하고 있다.

이와함께 유사 음원 AI 검색 서비스와 다국어(영어·중국어·일본어) 서비스 등도 지원된다.

진흥원은 이번 홍보부스 운영을 통해 케이사운드 라이브러리에서 서비스 중인 다양한 효과 음원을 청취하고 재미있게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며, 창작자 및 영화·영상산업 종사자를 포함한 대중에게 한국 영화 효과 음원과 케이사운드 라이브러리 서비스 활용 방법을 알릴 계획이다.

끝으로 영화음악을 소재로 한 시네마 공연이 오는 5월 2일부터 5월 5일까지 나흘간 오거리 문화광장에서 진행된다.

시네마 공연은 전주국제영화제와 함께 다양한 콘셉트의 영화음악 공연으로 준비되며, 케이사운드 라이브러리의 효과 음원을 활용한 연주도 함께 구성돼 관객들이 자연스럽게 효과 음원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

허전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은 “케이사운드 라이브러리는 한국적 정서가 담긴 한국형 효과 음원으로 구축된 국내 유일한 플랫폼으로, 그 가치를 비할 곳이 없다고 자부한다”면서 “영화에서 빠질 수 없는 K-사운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케이사운드 라이브러리(www.k-soundlibrary.kr)는 회원으로 가입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국제영화제 공식 누리집(www.jonjufest.kr)을 통해 확인하거나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영화 영상산업팀(063-281-4132)으로 문의하면 된다.

/권희성 기자

“봄기운 가득한 책 축제 즐겨요”

전주시 26개 공립작은도서관 힘 모아 ‘그림책으로, 봄’ 개최

전주시민들의 독서 사랑방인 전주시 26개 공립작은도서관들이 한마음으로 뭉쳐 시민들을 위한 봄철 책 축제를 펼친다.

전주시 공립작은도서관운영협의회는 오는 19일 건지산 오송재 편백숲 일원에서 책 축제 ‘그림책으로, 봄’을 개최한다.

올해 행사는 전주시 26개 공립작은도서관이 주축이 돼 자발적인 행사로 꾸며진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되는 이날 행사에서는 △그림책 읽어주기 △악기연주(오카리나, 우쿨렐레) △전주교육지원청 아버지 합창단 공연으로 행사의 포문을 연다.

이어 작은도서관 2~3곳이 함께 운영하는 8개의 체험부스와 상시 체험마당이 운영된다.

먼저 체험부스에서는 △퀴즈 풀기 △스타커로 받하늘 꾸미기 △그림 그리고 색칠하기 △책갈피 만들기 △투명 부채 꾸미기 △북 앤드 만들기 등 여러 가지 체험활동을 즐길 수 있다.

또한 체험마당에서는 △그림책 전시 △전래놀이 체험 △숲속 주변 쓰레기 3개 이상 주워 오면 새책으로 교환해주는 책 나눔장터 등이 상시 운영될 예정이다.

전주시 공립작은도서관운영협의회 관계자는 “숲속에서 마련한 다양한 체험행사를 통해 건지산 숲속에서 책과 함께 소통하는 즐거운 시간이 되길 바란다”면서 “많은 시민이 봄기운 가득한 이번 책 축제에 참여해 함께 즐겨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신용회복위 전주지부 협약

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센터장 김보영)는 16일 신용회복위원회 전주지부(지부장 김상초)와 경제적 문제로 인한 청·장년 취약계층의 자살 예방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023년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전국 자살사망자 중 50대 남성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자살 동기 중 ‘경제생활문제’가 25.2%로 2위를 기록하는 등 경제적 요인이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협약은 청·장년층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심리적 위기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신건강과 금융 복지를 연계한 실질적인 지원체

계를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주요 협약 내용은 △청·장년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대상자 발굴 및 서비스 지원 △대상자에 대한 상담, 교육, 프로그램 등 제공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자살예방사업 협력 등에 관한 사항이다.

특히 이날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경제적 문제로 인해 자살 사고 위험이 크거나, 자살을 시도한 대상자에게 정신건강 서비스와 채무조정 연계 등을 제공기로 했다.

또한 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채무 조정 제도’에 대한 전문 교육도 이뤄지게 된다.

/권희성 기자

중화산1동 새마을부녀회, 청소 취약지 환경정화 나서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1동 새마을부녀회(회장 한승연)는 회원들과 함께 관내 청소 취약지 환경 정화 활동을 시행했다.

중화산1동 새마을부녀회는 16일 주민센터 부근과 전주병원 일원, 공원, 골목길과 인도 변을 돌아다니며 동네 곳곳에 쌓인 각종 생활 쓰레기를 수거하여 주변 환경을 정비했다.

한승연 중화산1동 새마을부녀회 회장은 “회원들이 환경 정비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깨끗한 마을 환경을 만들어 가는데 큰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



로도 지속적인 봉사를 통해 쾌적한 중화산1동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전주 완산공원 꽃동산’ 화려한 봄꽃 만끽

검벚꽃·철쭉 등 만개하며
상춘객에 아름다운 풍경 선사

전주 완산공원 꽃동산이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관광명소로 자리 잡고 있다.

16일 전주시에 따르면 완산공원 꽃동산에 검벚꽃과 진달래, 철쭉 등 다채로운 봄꽃이 만개하면서 방문객 수가 약 2만 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최근 꽃샘추위로 인해 만개 시기가 다소 늦어졌으나, 이번 주말에는 만개한 봄꽃을 즐기려는 더욱 많은 방문객의 발길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약 1만5000㎡ 규모의 완산공원 꽃동산에는 철쭉과 검벚꽃, 꽃해당화, 배롱나무, 황매화 등 1만여 그루의 꽃나무가 식재돼있어 해마다 봄이 되면 화려한 꽃들의 향연이 펼쳐지고 있다.

이곳은 지난 1970년대부터 인근에 거주하던 시민이 1500여 본을 심고 40여 년 동안 정성껏 가꾸온 공간으로, 이곳을 가꾸는 과정에서 조경업자의 매매 유혹 등 어려움도 있었으나 해당



전주 완산공원 꽃동산이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관광명소로 자리잡고 있다.

시민은 이곳을 명소로 만들어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줘야겠다는 신념으로 꾸준히 관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시는 지난 2009년 이 꽃동산을 매입해 시민들을 위한 휴식 공간으로 탈바꿈시켰다.

시는 매입 이후 각종 꽃나무를 옮겨 심고 추가로 식재했으며, 전망대와 파고다, 산책로 등 편의시설까지 설치한 후 지난 2010년 4월부터 무료로 이곳을 개방해왔다.

특히 올해 꽃동산 방문객을 위해 시설물 도색, 데크 계단 정비, 수목 전지 등을 시행하여 방문객들에게 더욱 쾌적한 관람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가족 단위 시민, 전국에서 찾아온 관광객, 방송 촬영팀 등이 꽃동산을 찾아 봄날의 풍경을 만끽했다.

완산구청 직원과 주민, 경찰 등은 방문객들의 안전하고 편안한 관람을 위해 환경 정비와 교통 통제, 질서 유지 등에 공을 들이고 있다.

/권희성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렸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담은 전북의 구심점이자 전인자였다.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난한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제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감영 터의 중추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



선화당



관악각



내아